날짜	상시	회의 형태	비대면
참여자	김가희, 김현진, 김예빈, 문수빈, 전수아	시간	상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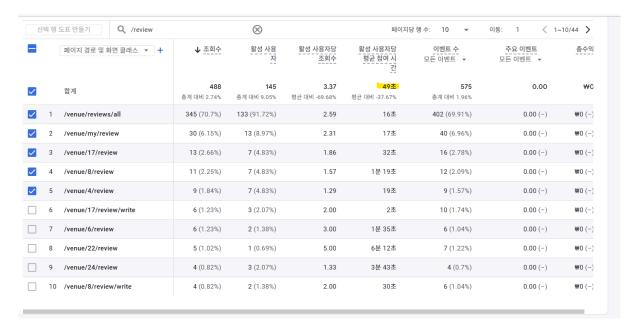
- 1. 체류 시간 1분 미만 원인
- 공연 정보를 보기 위해서만 접속하므로, 필요한 정보만 확인한 후 이탈 빠름 → 즉, 서비스 구조상 '정보 소비형' 특성이 강해서 체류시간이 짧음
- 반복 방문을 유도할 핵심 사용자의 부재
  - → 외부 링크 또는 SNS 홍보를 통해 한 번 들어왔다가 구경한 후 나가는 경우 多
- 2. 주요 페이지별 평균 접속 시간 비교 (10/16 ~ 10/28)
- 스탬프: 10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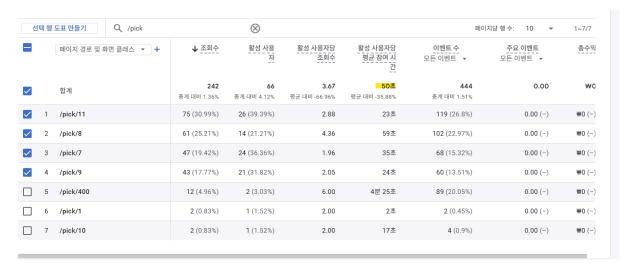
- 캘린더: 38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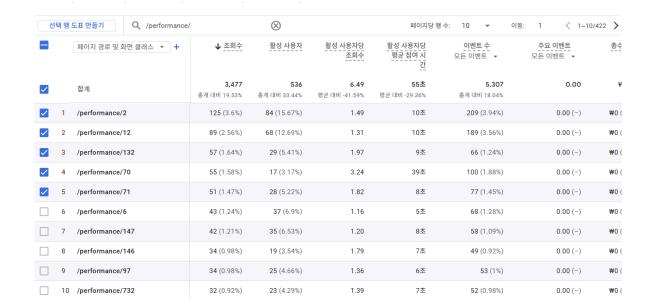
- 리뷰:49초



- 매거진: 50초 (그러나 조회수, 활성 사용자수 낮음)



- 공연 상세: 55초



- 매거진을 제외한 다른 페이지는 모두 객관적인 공연 정보성 페이지므로, 체류시간을
  높일 수 X
- 콘텐츠형 페이지에서 체류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핵심
- 공연 상세, 캘린더, 스탬프, 리뷰 페이지는 기능성에 가까우므로 목적을 달성하면
  바로 이탈하는 게 당연함
- 매거진 같이 사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거나,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필요

# 3. 홍보 진행 사항

- 공연장에 모디 홍보지 전달
- 라이브 클럽 데이 때 옆에 있는 관객에게 모디 서비스 홍보
- 인플루언서 n명 컨택 → 답장 X
-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 홍보 중 (rt 추첨, 쪽지 보내기)

#### 4. 공연장 방문 현황

- 서울 9곳, 인천 3곳 총 12개 공연장 방문 O
- 28개의 공연장 남은 상태

## 5. 추가적인 컨텐츠 아이디어

- 1) 고려해야 할 것
- 사용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이디어 필요
-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, 목적에서 너무 벗어하지 않게끔 사용자의 참여가 아닌 운영진의 주도성이 필요

### 2) 아이디어 후보

- 아티스트 가사 한줄 배너 : 홈 화면 중간에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 한줄을 넣어놓고, 클릭하면 아티스트 상세 페이지로 이동. 아티스트 홈보 효과.
- 퀴즈: '우주파가 위치한 지역의 이름은?', '이번주 ㅇㅇㅇ 공연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라인업은?' 등등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이동하면서 공연, 공연장, 아티스트를주도적으로 디깅할 수 있도록 함. 그러나 안정적인 사용자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사용자의 이동이 필요한 컨텐츠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.
- 베스트 공연 리뷰: 사용자의 리뷰를 DM이나 이메일로 받아서 운영진이 선정하여 모디에 보여줌. 그러나 선정 기준도 모호하며, 과거의 공연보다는 예정된 공연에 관련된 컨텐츠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.
- 인디**mbti** : 스탠딩파vs좌석파 등등 인디를 즐기는 특성에 따라 캐릭터를 분류. 그러나 일회성 컨텐츠임.
- 아티스트 매거진: 매거진을 2개 실시하는 것이므로 브랜드 깊이가 커질 수는 있지만, 분산 리스크 가능성도 있을 듯 함. 아티스트 서치 & 인터뷰(깊이 있는 글을 위해)가 필요하고, 3-4배의 리소스가 더 들어감. 한쪽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서비스 신뢰도에 영향이 갈 것 같아, 공연 정보 전달의 목적에 맞게끔 정기적인 아티스트 매거진 발행은 보류.
- 이번주 인디 노래 pick + 서브 주제 뉴스 : 운영진이 직접 선정한 인디 노래를 추천. (실제로 응답 중 아티스트나 아티스트 곡을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기에 이 컨텐츠를 통해 해결 가능) n주에 한번씩 서브 주제(아티스트 인터뷰, 맛집 추천, 인디 mbti 등)를 통해 사용자의 호기심 유발

## 6. 아티스트 매거진이 아닌 '이번주 인디 노래 컨텐츠'의 필요성

- 아티스트 매거진을 하려면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보니 인터뷰가 필수인데,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공연 매거진보다 아티스트 매거진에 더 집중이 될 위험 커짐.
   우리 서비스 기획 목적인 공연 정보 전달이 흐트러질 수 있을 듯 함.
- 앞서 말했듯 아티스트 매거진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긴글을 읽기에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음. 그러나 노래 추천 글은 가볍게 훑어볼 수 있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거라 추측. 아티스트 매거진은 이미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계정에서 운영 중이기도 함.
- 애초에 다양한 소규모 인디 공연이 모여있는 서비스이기에, 한명의 아티스트가 아닌 다양한 노래를 추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깊이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 서비스의 핵심, 또 다른 매력 아닐지.
- 노래 추천 시 아티스트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려지므로, 사용자들이 구글폼에서 응답했던 '아티스트를 알고 싶다'는 요청에 대한 해결책 확립 완료